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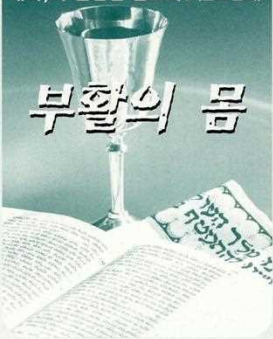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깨아,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전례)



간을 구원하시는 그의 계획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현재)을 무시하고 먼 구름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시는 제한되어 있다 (행 1:1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 거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요 14:2-3; 계 1:7).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나 하는 것은 논의할 줄 외한 주제이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육을 입고 있는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부활의 몸은 전적으로 영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15:44, 50 말씀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육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성령"과 대조되어서 쓰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롬 8:5-8; 갈 5:17).

성경은 "육"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구약에 의하면 육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한 윤리적으로 중립에 있다. 모세는 인간의 몸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무런 잘못된 육체가 없었다고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을 포함한 인간의 창조와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고 언급하셨다(창 1:31). 타락 이

후에 죄의 근원이 인간의 마음속(내적 인간) 자리를 잡았다. 인간의 육체(보이는 외적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가 육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신약에서는 이 육(Flesh)이라는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 쓰여지고 있다. 때로는 육신(몸)을 가리킨다(눅 24:39). 또 어떤 때는 전체적인 인간 자체, 살아 있는 인간으로 설명한다(행 2:17). 몸에 대한 동의어나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마 26:4), 몸에 대한 죄성으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골 3:1),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 을 육체가 없나..."(롬 8:4, 3:20), 또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요일 4:3). 이 "육"이 죄성을 가리킬 때는 근본적으로 악을 말한다. 그러므로 "육"을 저주하는 성경 말씀은 사실상 몸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구약은 점자적으로 부활한 몸에 대하여 계시하여 준다(욥 19:25-27). 이 구절은 몸의 부활을 암시하여 주고 있지만 내용 자체가 해석하기 힘든 점이 있다. 두 시편도 해석하기가 힘든 점이 있다(시 16:9-11; 17:15).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몸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그려 주고 있다(사 26:19). 가장 명백한 말씀은 다니엘 12:2-3에 있다. 성도들의 몸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믿는 자들의 몸은 영화스러운 "육"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것이다. 히람 사상에서는 모든 물체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므로 인간 전체보다는 영혼의 불멸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몸에 대하여 상당한 존엄성을 주고 있다. 인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고전 6:13-15, 19-20). 믿는 자들의 부활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패턴임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다(롬 6:5).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더 명백하게 설명한다(빌 3:20-21).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진리를 언급하고 있다(요일 3:2). 그러므로 장차 우리의 몸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의 형상의 형체이다. 동시에 그리스도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영생이 있고 광영에 거하신다(딤후 6:16). 그리스도 이전에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요, 그들의 몸이 다시 소생된 것일 뿐 후에 또 다시 죽음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만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고 영광스런 부활의 몸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다(고전 15:20, 23; 골 1:18; 계 1:5).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시므로 우리는 후에 맺혀지는 같은 종류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실재했던 동시에 또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이다. 즉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동일한 동시에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교회주변 총력 전도는 계속됩니다! (딤후 4:5)

전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신자들이 전도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을 사용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행 1:8).

전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불러서 전도자로 사용하시는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행 20:24). "누가 우리를 위해 갈라" (사 6:8) 하며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현의 성도들은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져 모든 성도들이 지난 3월부터 교회주변 총력 전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수요일마다 성경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데 어떠한 상황도 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은총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만 있었습니다(삼상 15:22). 지금도 주님의 부르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8월에도 전도는 계속되니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딤후 1:3).

*각 교구가 전도하고 있는 교회주변지역



KING ASA'S LIFE

(7) At that time Hanani the seer came to Asa king of Judah and said to him, Because you have relied on the king of Aram and have not relied on the LORD your God, therefore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has escaped out of your hand. (8) Were not the Ethiopians and the Lubim an immense army with very many chariots and horsemen? Yet, because you relied on the LORD, He delivered them into your hand. ... (14) And they buried him in his own tomb which he had cut out for himself in the city of David, and they laid him in the resting place which he had filled with spices of various kinds blended by the perfumers' art; and they made a very great fire for him. (2 Chronicles 16:7-14)

King Asa, third king of Judah, whose reign lasted forty-one years (911-870), started his kingship with great success, but ended it in total failure. His rise to glory changed him from a humble man who relied on God to a proud man who depended on himself. This change led to his fall from glory. Even on his deathbed, he did not seek the Lord, but the physicians. As we look at his life, I hope you can see the need and importance of relying on God, especially to the very end.

Asa was a good believer. The Bible says that he did "good and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his God" by removing the obstacles that hindered Judah's faith and commanding them to follow and obey the Lord God (2 Chron. 14:2-4). He based his godly leadership on the word of God. He was a God-centered king who did not compromise with earthly things. When Israel camped by Mt. Sinai, they had already experienced God's ten different miracles in Egypt, crossed the Red Sea on dry ground, saw God's presence every day in a pillar of cloud and every night in a pillar of fire, and eaten manna from heaven. After God called Moses, their leader, away from them for only forty days so that He could give them His ten commandments, they changed. In his absence, they made a foreign god, a golden calf, to worship. Just as Moses destroyed their golden calf (Ex. 32:20), so Asa cleaned up Judah's idolatry, "for he removed the foreign altars and high places, tore down the sacred pillars, cut down the Asherim" (2 Chron. 14:3). He was a perfect believer who served God with all his heart.

Asa had strong faith. When the Ethiopians came out to fight him with an army of a million men and 300 chariots, his army only holding 580,000 warriors, he was not afraid but relied on God. He prayed,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o help in the battle between the powerful and those who have no strength; so help us, O Lord our God, for we trust in You, and in Your name have come against this multitude. O Lord, You are our God; let not man prevail against You" (2 Chron. 14:11). His beautiful prayer revealed his true faith. Just as David went against Goliath and Elijah against 850 false prophets, so Asa overcame the Ethiopian army,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1 Jn. 5:4). Asa's good faith brought victory.

Asa listened to God's voice. He not only heard God's words, but he obeyed them. When the prophet Azariah came to him with a message from God (2 Chron. 15:1-7), he recognized the Spirit of God and humbled himself to listen. Like 1 Corinthians 10:12 reminds us,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l," so Azariah reminded Asa. "Now when Asa heard these words and the prophecy which Azariah the son of Oded the prophet spoke, he took courage and removed the abominable idols from all the land of Judah and Benjamin and from the cities which he had captured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He then restored the altar of the Lord which was in front of the porch of the Lord" (2 Chron. 15:8). Asa took God's word seriously and obeyed it immediately.

Sadly, as Asa grew older, he changed. His pride led his faith down to earth, away from God. His fame and fortune got to him in such a way that he started doing his own thing, thinking his own thoughts, following his own pathway. When he allied himself with Ben-Hadad, king of Aram, by giving him "silver and gold from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king's house," he showed his lack of dependence on the Lord (2 Chron. 16:2). His shameful behavior displayed his trust in money and other people, but not God. Hanani the seer told Asa, "Because you have relied on the king of Aram and have not relied on the Lord your God, therefore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has escaped out of your hand. Were not the Ethiopians and the Lubim an immense army with very many chariots and horsemen? Yet because you relied on the Lord, He delivered them into your hand. For the eyes of the Lord move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that He may strongly support those whose heart is completely His. You have acted foolishly in this. Indeed, from now on you will surely have wars" (vv. 7-9). Asa responded to God's message by jailing the messenger. His anger led him to imprison the man who loved him enough to give him this advice.

Galatians 5:7 says, "You were running well; who hindered you from obeying the truth?" God sent his servant to Asa with a sermon to help him, to give him an answer to his problem, but he did not listen. His success changed him. Instead of giving glory to God, he started taking it for himself. When someone exhorts or rebuke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is your pride damaged or humbled? When Stephen preached God's message to the Israelites, "they were cut to the quick, and they began gnashing their teeth at him" (Acts 7:54). Like Asa, they did not want to hear the truth because it offended their pride. Revelation 2:10 says,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It is not the beginning, but the end of your faith that is important.

In his life, Asa really believed, trusted, and listened to God, and God blessed him. With his blessings, Asa changed. When you experience great achievements, give the glory to God, so that you can remain in need of Him. Do not keep it for yourself because it will change you, just as it changed Asa. Listen to God's word until the very end. Please keep your faith until death, and God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Amen. 

다음 주일 설교

아사 왕의 생애

- ⑦ 때에 선전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 ⑧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
- ⑨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제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대하 16:7-14)



김성원 목사

유다의 제3대 왕으로 41년 동안(911-870) 유다를 치리한 아사 왕은 성공적인 왕권의 시작과는 대조적으로 완전한 실패로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며 되자 자기 자신만을 믿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침상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아사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것을 없앴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것을 명했습니다(대하 14:2-4). 그의 왕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에서 장마를 쫓을 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열 거지나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믿을 주시기를 위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단 40일 만에 배역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들은 이방신 곧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부순 것처럼(출 32:20) 아사 왕도 유다의 우상들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우상을 훼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대하 14:3).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

아사 왕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이 군사 백만과 병거 삼백 승을 거느리고 나아왔을 때 그에게는 오십팔만의 군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사 왕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시니 완전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대하 14:11). 이 아름다운 기도 속에는 그의 진실한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860명의 거짓 선지자를 대적했던 것처럼, 아사 왕은 막강했던 에티오피아 군대를 쳐서 승리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아사 왕의 담대한 믿음이 승리를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왔을 때(대하 15:1-7) 아사 왕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임을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12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처럼 아사라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사야 이 말 곧 선지자 오매

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 또 여호와와 낱실 및 여호와와 단을 중수하라”(대하 15:3).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사 왕의 변신

그러나 슬프게도 아사 왕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만심이 그의 믿음을 세상으로 끌어내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명성과 부가 더해지자 아사 왕은 자신의 일을 도모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에 몰두했으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여호와와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보내며 동맹을 자청하는 아사 왕의 모습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대하 16:2). 이 부끄러운 행동은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의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7-9).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을 사량하여 충정 어린 간언을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갈라디아서 5:7은 말합니다.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리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 주어 아사 왕을 도우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성공이 그를 바꿔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혼쾌하거나 책망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강박해지지는 않습니까? 스테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자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행 7:54). 아사 왕처럼 그들도 진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 절은 말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처음 믿음을 어떻게 맞이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그의 생애를 돌아볼 때 아사 왕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아사왕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의뢰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할 때 우리도 변하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

장로 칼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13교구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딤후 2:21)



백훈식 (13교구장)

13교구는 강서구·양천구 일부·부천·인천·시흥·김포 등 5개 시가 교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지역, 28개 구역, 321세대 773명으로 서로 협력하며 교구와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난 교구 식구들은 헌신된 일꾼으로서 교구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요 17:3)라는 말씀을 2005년도 교구 표어로 정하고 1)말씀 생활 2)기도 생활 3)모임 생활 4)전도 생활 5)선교 생활의 실천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성경 읽기,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나아가 선교하는 일에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교구 식구들이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남다른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2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 84일이 단기 선교사역을 종결하도록 일정을 정하였고, 현재 6개 팀이 사역을 마치고 선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 영성훈련, 금요 특별찬양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남녀 전도회 중심으로 교회주변 전도와 자원봉사, 일대일 전도 등 말거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교회와 먼 거리에 있어 주일 성수, 수요일 예배, 금요 집회 등 교회의 작고 큰 모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두세 시간 전에 가정과 직장·사업장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순종하는 일꾼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교구 식구들은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금요 집회에 적극 참여함으로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하여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려고 합니다. 교구의 특성상 교구 행정도 다양한 각도로 일상보완하게 움직이며 남정구를 비롯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남정도회는 정교사를 비롯한 식당 봉사 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참여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구역을 돌보는 일꾼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버스를 몇 번씩 갈타면서 힘들게 이동해야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얻기에 순종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교구 식구들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샘솟처럼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기도와 회개

정년1부 하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볼 때 이번 수련회는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던 라마나 옷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첫째 날 셋새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마 26:36-46)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의 연합함 때문에 죄를 기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베드로의 회개(마 26:69-75).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자신의 생각까지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던 베드로였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고 예수님 앞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세 번째 하나님을 맹세하여 부인한 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베드로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에게 전심된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도 동일한 기회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죄인 중에 죄수’임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언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더욱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소서.”

이정희 (집사, 정년1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은 아픔에 극복의 언약을 하셨습니다(창 25:23). 하지만 아픔은 확신에 대한 결여로, 기다림의 형식이 부족하여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였습시다. 그 결과 형 에서에게 쫓기며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기까지 스스로 비참하고 추한 삶을 선택하였습시다.

남다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축복과 승리를 약속한 성경 말씀을 잊고 아픔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안간힘을 쓰며 풀어나가려는 모습, ‘이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신 분, 내가 눈과 귀를 닫고 있어도 나를 여전히 감찰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 텐데, 어리석게도 저는 온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었습시다.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바라시는 주님. 레아의 콤플렉스를 아시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그 때에 태를 열고 잉태하게 하셨습니다(창 29:31). 애굽 아래서 핍박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까지 주님은 천사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집어 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감히 그분의 생각을 저하는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모든 것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요, 나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저희는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시 139:1-6).

수련회에서의 2박 3일의 시간만이 아닌 삶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함으로 힘들게 느껴지는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십자가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종근 (대학부)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 믿으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항상 그래왔듯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바로 '우리'란 것을 깨달았다. 또한, 바울과 다니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부흥회 때 촛불을 가지런히 모아 커다란 십자가를 만든 것 또한 은혜스러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선생님들이 우리 발을 씻겨 주셨을 때는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밤 자고 일어나 큐티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비디오투를 보았다. 성경퀴즈 대회에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 복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줬다. "예수님 믿으세요."

곽찬양 (소년부)

"영아부~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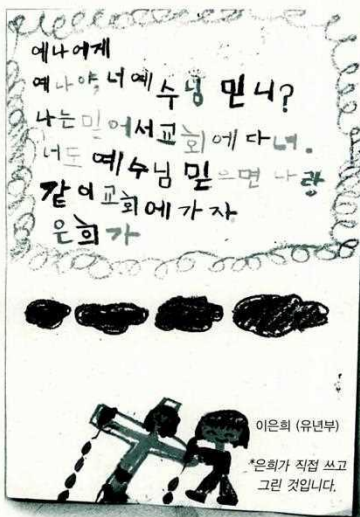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무더위로 조금씩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저에게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는 신선한 청량제와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수아를 데리고 이틀이나 교회에 나가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그 이상의 은혜와 도전을 받은 성경학교였습니다. 부모를 위한 특강 시간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수아를 양육해야 함을 깨달았고, 항상 믿음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수아를 잘 양육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아가 어려서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급 배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수아가 커 나가면서 수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아의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수아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수아를 양육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아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들려 주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지영 (영아부 / 수아엄마)



이은희 (유년부)

*은희가 직접 쓰고 그린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만을!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 나는 그 중에서 '미니올림픽'이 제일 재미있었다. '미니올림픽' 중에도 '성경 말씀 만들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그리고 나는 '디도서 3장 3절'을 마음속에서 '광광' 새겼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풍부했다. 하지만 바울은 전도할 때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만 증거했다. 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이연경 (초등부)

십자가라는
밀그림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20, 21일에 유아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여러 가지 천국 잔치가 4살과 3살인 은수와 은진이의 한여름 더위를 식혀 주었다. 찬양대원인 은수는 1시간 거리의 길을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가서 연습하고 준비해야 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출근 시간의 복잡한 지하철, 어린이집의 캠프는 모두 다 뒤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과 교회로 갔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율동, 게임, 만들기 등의 활동과 전도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은수는 전도 훈련 중에 전도하는 방법을 친구에게 보여 주는 순서에 참여하게 되어 몇 주 전부터 전도 훈련을 받았다. 둘씩 짝을 이루어 안 믿는 어린이가 되어 믿는 어린이에게 전도를 받는 것이다. 아이들이 전도하는 말을 듣고 참으로 놀랐다.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었지만 은수가 하는 말들은 감동적이었다.

우리 은수와 은진은 세상을 아직 모른다. 어린 아이라 모르는 세상뿐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들어온 말씀과 찬양과 교회가 세상의 전부이다.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밀그림을 유아부는 그려 주었다.

우리 은수, 은진 그리고 중한의 아이들이 중한교회 교회학교에서 매주 예배드리며 또 천국 잔치인 성경학교에서 보내며 자라서 천국 일꾼이 되길 기도한다. 이번 성경학교를 은수와 은진이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성경학교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천국 잔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받은 전도 훈련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 증인이 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한다.

김지영 (유아부 / 정은수·은진 엄마)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처음** 선교를 나가는
이한원 형제 (청년 1부)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정말 부족한 죄인이라고 주저없이 말하며

그럼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기쁘다는

수승한 믿음과 가진 형제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

저를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어요?

작년 2월에 친구의 권유로 출현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였습니.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6개월의 양육을 받으며 청년1부에 소속되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올해 초 한 집사님의 권유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이제 1년이 갓 넘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없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선교는 본인이 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권고의 말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선교를 결정하고 변한 점이 있으세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제 자신이 놀라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고 저의 일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일의 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 훈련을 비롯해 금요 집회까지 가장 먼저 시간을 비워 놓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제겐 기쁨의 시간이 되었어요.

선교 훈련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CMTC 훈련부터, 전도, 언어 훈련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 거부감 없이 참여하는 제 행동들을 보며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팀 훈련을 하며 팀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였고, 그 일들이 아주 작을지라도 제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선교를 결정하지 못한 성도님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욥 8:7).

하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선교에 섰다 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면 분명히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고, 저 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도 나간다는 것을 꼭 막해 주고 싶습니다.

(전집실)

▲ 현재 지역 동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25일(월) - 8월 2일(화)	대학부(1)	이기욱	7월 27일(수) - 8월 5일(금)	2교구 2지역	문종무
7월 25일(월) - 8월 3일(수)	13교구 1지역	임원수	7월 27일(수) - 8월 5일(금)	6교구 8지역	안성식
7월 25일(월) - 8월 3일(수)	6교구 5지역	이성영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7지역	유준식
7월 25일(월) - 8월 4일(목)	10교구 6지역	김민호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11지역	신성길
7월 26일(화) - 8월 2일(화)	청년2(3)	최정하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8교구 2지역	김홍기
7월 26일(화) - 8월 3일(수)	6교구 1지역	박광식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2교구 7지역	한예진
7월 26일(화) - 8월 3일(수)	6교구 3지역	이병두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6지역	최민석
7월 26일(화) - 8월 3일(수)	대학부(2)	박희하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4교구 1지역	조종진
7월 26일(화) - 8월 3일(수)	5교구 3지역	박옥현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6교구 7지역	김병관
7월 26일(화) - 8월 4일(목)	9교구 7지역	김민태	7월 29일(금) - 8월 6일(토)	4교구 1지역	이상석
7월 26일(화) - 8월 4일(목)	7교구 5지역	전계식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교구 2지역	이보신
7월 26일(화) - 8월 4일(목)	6교구 6지역	김현식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6교구 1지역	김성수
7월 26일(화) - 8월 4일(목)	6교구 4지역	안복자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1교구 4지역	박찬서
7월 26일(화) - 8월 4일(목)	대학부(30)	조영구	7월 29일(금) - 8월 6일(토)	외선부(2)	장병준
7월 26일(화) - 8월 5일(금)	17교구 2지역	유재훈	7월 29일(금) - 8월 6일(토)	8교구 1지역	김합남
7월 26일(화) - 8월 5일(금)	17교구 7지역	문경인	7월 29일(금) - 8월 6일(토)	대학부(23)	예창호
7월 27일(수) - 8월 3일(수)	에버다(1)	안준모	7월 29일(금) - 8월 6일(토)	청년2(4)	장철현
7월 27일(수) - 8월 3일(수)	에버다(2)	윤영범	7월 30일(토) - 8월 6일(토)	청년1(7)	김준선
7월 27일(수) - 8월 3일(수)	17교구 3지역	이호일	7월 30일(토) - 8월 6일(토)	고동부(8)	홍승진
7월 27일(수) - 8월 5일(금)	2교구 4지역	이영한	7월 30일(토) - 8월 6일(토)	고동부(9)	김순근
7월 27일(수) - 8월 5일(금)	1교구 4지역	윤선한			

* 많은 선교팀들이 선교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막 9:29).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고, 또 여기 저기 한 채씩 흩어져 있는 유목민의 집 겹을 찾아 길도 없는 평원을 달리고 고생한 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선교를 잘 마치 수 있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선교 사역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고 문명을 동진 시 확량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섬리에 감사합니다.

90% 이상이 라마 불교인이고 축초 방음을 가면 대개가 불상을 두고 있고 또 우리의 언어가 매우 서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귀국 길에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팀원이 영어를 하는 젊은 부부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부부는 아주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혼을 대하며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때마 우리는 선교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악령의 쇄살술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섬리를 거듭 체험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기림 (집사, 1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중 · 고동부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1일(월) - 8월 6일(토)	고동부(11)	이영선	8월 2일(화) - 8월 6일(토)	중동(11)	전은배
8월 1일(월) - 8월 6일(토)	고동부(12)	정민준	8월 2일(화) - 8월 6일(토)	중동(12)	정종일
8월 1일(월) - 8월 6일(토)	중동(4)	김은심	8월 2일(화) - 8월 6일(토)	중동(13)	양현일
8월 1일(월) - 8월 6일(토)	중동(5)	윤병식	8월 3일(수) - 8월 10일(수)	고동부(6)	김동철
8월 1일(월) - 8월 6일(토)	중동(6)	김명성	8월 3일(수) - 8월 10일(수)	고동부(10)	윤재민
8월 1일(월) - 8월 6일(토)	중동(8)	노해경	8월 3일(수) - 8월 10일(수)	고동부(13)	김영현
8월 1일(월) - 8월 6일(토)	중동(30)	정현자			

▲ 이번 주에 도착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8월 1일(월) - 8월 8일(월)	대학부(2)	김기웅	8월 2일(화) - 8월 11일(목)	3교구 5지역	이경재
8월 1일(월) - 8월 8일(월)	대학부(31)	윤석민	8월 2일(화) - 8월 11일(목)	외선부(3)	안석현
8월 1일(월) - 8월 9일(화)	8교구 8지역	남승용	8월 3일(수) - 8월 12일(금)	5교구 1지역	김운환
8월 1일(월) - 8월 9일(화)	대학부(32)	임정식	8월 4일(목) - 8월 12일(금)	13교구 7지역	장창규
8월 1일(월) - 8월 10일(수)	1교구 6지역	김대용	8월 4일(목) - 8월 12일(금)	16교구 7지역	김재호
8월 1일(월) - 8월 10일(수)	12교구 1지역	정영태	8월 4일(목) - 8월 12일(금)	10교구 3지역	김영록
8월 2일(화) - 8월 10일(수)	16교구 2지역	현준봉	8월 4일(목) - 8월 13일(토)	대학부(21)	한현식
8월 2일(화) - 8월 10일(수)	11교구 7지역	석영식	8월 4일(목) - 8월 13일(토)	4교구 9지역	이희우
8월 2일(화) - 8월 10일(수)	9교구 1지역	동방운용	8월 4일(목) - 8월 13일(토)	4교구 10지역	류기명
8월 2일(화) - 8월 10일(수)	14교구 6지역	박종환	8월 4일(목) - 8월 13일(토)	4교구 12지역	권오준
8월 2일(화) - 8월 11일(목)	3교구 4지역	김성호	8월 6일(토) - 8월 15일(토)	5교구 6지역	김달현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18일(월) - 7월 23일(토)	고동부(4)	김호준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고동부(6)	박준근
7월 18일(월) - 7월 26일(화)	15교구 7지역	남용철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고동부(7)	최용길
7월 18일(월) - 7월 26일(화)	12교구 3지역	강창식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고동부(14)	강신현
7월 19일(화) - 7월 27일(수)	대학부(25)	이영수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동(21)	김신국
7월 19일(화) - 7월 27일(수)	15교구 2지역	강석희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동(22)	박용우
7월 19일(화) - 7월 27일(수)	12교구 7지역	이영선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동(31)	장기학
7월 19일(화) - 7월 28일(목)	8교구 5지역	김동필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동(31)	윤배근
7월 21일(목) - 7월 29일(목)	9교구 7지역	장승규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동(32)	주순희
7월 22일(금) - 7월 29일(목)	5교구 4지역	정여동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동(33)	박영선
7월 22일(금) - 7월 30일(토)	5교구 5지역	박봉민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중동(34)	현준봉
7월 23일(토) - 7월 30일(토)	청년1(3)	김복득			

교회 탐방 74 중등1부 선교팀

성령에 사로잡힌 어린 용사들

아무진 각으로 선교길에 나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앞에서 우리는 왜 부끄러울까? 이들의 열정과 순수하고 적극적인 근원은 어디일까?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 먼 나라의 영혼을 위해 감히 길을 떠나려는 것일까? 선교지 사람들과 구체적인 교감을 꿈꾸는 이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진정한 사도들이다.

모두 몇 분이 떠나시나요?

다섯 분의 선생님과 여섯 명의 학생이 갑니다. (전예진 교사)

왜 선교를 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요. (김아영) 성령님의 인도로 갑니다. (이성원)

그 나라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한은예)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찬구 가려고요. (이은예)

전국에서 그들과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요. (이영문)

자발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친구와 함께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지예)

결집하기까지 어려웠던 일이 있었나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중요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간 중에 선교를 가게 되어 '하직'은 그것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 선교를 결집했어요. (오지예)

무엇보다 선교가 뜻 깊어서 모든 것을 미루었어요. (김아영)

선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유가 기간에 가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정진 교사, 총무)

선교를 준비하는 지금과 전을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영문이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학생들이 이국풍성으로)

그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은예)

성경 읽기에 힘을 쏟게 되었고 특히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요. (김아영)

그 나라에 대해 관심이 늘었어요. (오지예)

CMIC를 통해 전도에 대해 새롭게 중요함을 배웠어요. (이성원)

어떤 각오를 품고 가나요?

담대하게 전하고 싶어요. (이은예)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은예 교사)

믿음만을 갖고 갑니다. (이영문)

구원과 전도의 사명을 자꾸자꾸 생각합니다. (이성원)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김성민 교사)

전도 열심이 해야죠. (한은예)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위에 섰려고요. (오지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문제 없어요. (김아영)

사역지에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정진 교사)

어린 학생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책임감이 크지만 보람도 큼니다. (김성민 교사)

학생들이 힘들 때도 묵묵히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은 예를 받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마치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은예 교사)

학생들이 언어소통 능력을 보고 놀랐고, 순수하게 선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오려려 도전을 받습니다. (전예진 교사)

선교는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일치체가 되어서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정진 교사)

어린 용사들이여,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편진실)

다음주일 찬송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는데

이 찬양은 존 헨리 뉴먼(Cardinal John Henry Newman, 1801~1890) 추기경이 작사하고, 존 바흐스 다이크스(Rev. John Bachus Dykes, 1823~1876) 박사가 작곡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작사자가 차해 있는 현재 성당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애절한 부르짖음입니다.

1절은 시편 107만 14절은 '죽임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얇은 줄을 끊으셨도다'라는 말씀에서 출발한다. 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때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빛 되신 주님께서 저 본향을 향한 믿음의 길을 비추 주심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는 과거 우리의 죄 대 용서받아서 한 결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찬양한다.

2절은 과거 죄 아래서 방황하며 지낼 때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교만하여 모든 믿을 내 마음대로 고집하던 때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 비로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갈 길들을 주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찬양한다.

3절은 이제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정례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신령이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며 죄악의 깊은 밤을 지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만나는 하늘의 산 소망을 찬양한다.

사랑하는 흥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 길 멀고 밤은 분명히 깊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길수록 밝은 아침의 새벽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영원한 본향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힘 있게 찬양하는 성도가 됩시다.

(찬양원인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04	김세호	6	청년1부	윤규환(18)	2325	장광순	8	장년2부	김재희(16)	2346	이주희	19	청년1부	이미영(19)
2305	김연희	4	청년2부	박영환(4)	2326	김정혜	19	청년1부	노정희(4)	2347	김재석	15	청년1부	김성현(15)
2306	서현준	19	종로3부	문은주(4)	2327	김승현	19	고등부	최민욱(13)	2348	이기순	12	청년3부	박윤석(8)
2307	송경옥	13	청년2부	이종현(17)	2328	허경희	19	대학부		2349	김호노	12	청년3부	박윤석(8)
2308	이디희	19	고등부	김호철(9)	2329	정지혜	19	대학부		2350	김정현	12	소망부	박윤석(8)
2309	이진미	19	고등부	김호철(9)	2330	성길상	10	청년3부	성정영(8)	2351	김진민	11	소망부	김봉태(8)
2310	안연제	19	고등부	서서영(11)	2331	김경문	19	고등부	오미라(13)	2352	최창숙	19	고등부	정민형(8)
2311	박영애	12	청년3부	이미애(12)	2332	김성미	19	대학부	권선영(7)	2353	최호한	19	고등부	
2312	류정현	19	고등부	김재희(3)	2333	이옥란	14	소망부	윤남진(14)	2354	한병덕	6	청년1부	이진규(8)
2313	신선란	2	청년3부	박소연(8)	2334	박은정	19	고등부	김예실(8)	2355	김민	19	고등부	최정미(19)
2314	임병수	19	고등부	김유영(8)	2335	김여민	11	청년1부	박종문(8)	2356	최창숙	7	에디터부	박부미(18)
2315	이진란	19	대학부	유준현(2)	2336	이상현	19	대학부	허인연(4)	2357	전태진	14	대학부	조윤성(2)
2316	이재호	3	청년3부	정일환(2)	2337	이영진	12	소망부	박윤석(8)	2358	김일숙	17	청년1부	조윤성(2)
2317	안윤희	1	청년1부	안소희(1)	2338	유용민	10	소망부	박윤석(8)	2359	이이연	10	청년1부	이영환(18)
2318	김지희	19	종로3부	김태현(2)	2339	박승실	17	청년2부	김정일(18)	2360	김경순	10	청년1부	최희진(10)
2319	안정훈	12	청년2부	안소희(1)	2340	한상국	6	청년3부	허영애(5)	2361	박소현	19	대학부	이영환(1)
2320	이수연	19	대학부	임지연(8)	2341	박근산	12	청년2부	김정희(18)	2362	김남형	19	청년1부	이영환(1)
2321	서태극	18	청년2부	정일환(2)	2342	김은숙	17	청년1부	이혜린(18)	2363	임미애	2	청년1부	한채준(2)
2322	이함술	19	대학부	김소정(3)	2343	신영진	18	청년2부	김연희(8)	2364	경세윤	19	대학부	이혜진(19)
2323	김성희	19	대학부	김가영(8)	2344	전일숙	12	청년3부	이미애(12)	2365	오희경	19	대학부	오태석(1)
2324	전현숙	3	청년2부	정재희(2)	2345	김영록	19	대학부	김희영(8)					

* 흥천교회회의 기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시: 31일(오늘) 15:00
장소: 갈릴리홀
2. 권사회 1지회 월례회
일시: 8월 3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홀

별 세

1. 김기성 성도 (홍옥재 집사의 남편, 김지현 집사의 부친, 17교구 장미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2. 김진호 성도 (나치에 은퇴집사의 남편, 김옥자 집사의 부친, 이창근 집사의 장인, 15교구 상도2구역) / 24일 별세, 26일 장례

◆ 전도회 감사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 7월 3일(주말) ~ 7월 31일(오늘)

대상 기간 : 2005년 1월 ~ 6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실(교육관 6층)

준비 서류 :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교회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경비직 (약간 명)
2. 자 격 세례교인 (만 55세 이하)
3. 제출 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공 ☎ 02-552-8200 (#403)

8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I	II	III	IV	V		I	II
8	7	이계인	김구형	김단용	정태두	김승곤	김을필	김영숙	원웅철
	14	정선현	윤석진	박철구	김영길	김의철	이인광	양명자	이정애
	21	박홍규	조종환	권명옥	이 훈	이태식	이홍우	이옥희	백옥심
	28	박덕양	정창길	신호호	오진국	한승기	임부천	이자정	변경희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8/6(토)	8/7(주일)
설교자/기도자	류병희/함철주	이정훈/이부성	고광환/정재모	안치원/김달현	이경준/이인광	김태석/류진희	나광영/전은희

예배담당 안내 (8/3-8/7)

날짜	예매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8/3	수요 I	주 예수 대문 밖에 (호산나 찬양대)	고광한	권경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마 5:35-43) 이경준 목사
8/3	수요 II	내 주의 보혈은 (실로암 찬양대)	김태식	김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히 10:19-20) 이정훈 목사
8/5	금요일회	바이올린 정보라/1교구/스프링노 이하나	이재영		김성관 목사
8/7	주일 I	《예배 찬양》	이재훈	이재인	이사왕의 생애(대하 16:7-14) 김준희 목사
8/7	주일 II	갈보리산 위에 외 / 바이올린 정보라 (임누누 오케스트라)	임현덕	김규형	이사왕의 생애(대하 16:7-14) 류병복 목사
8/7	주일 III	대 영혼이 은총 입어 외 / 피아노 트리오(아연 오케스트라)	안정덕	김민호	이사왕의 생애(대하 16:7-14) 김성관 목사
8/7	주일 IV	대 영혼이 은총 입어 외 / 피아노 트리오(아연 오케스트라)	정승진	정태두	이사왕의 생애(대하 16:7-14) 차종철 목사
8/7	주일 V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외 / 스프링노 김아미(별첨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영훈	김승문	이사왕의 생애(대하 16:7-14) 최건강 목사
8/7	주일양양	찬반부 중창단/별첨노 김아미/찬양무아 찬양대	이성진		그리스에 안락함 갈라디(골 5:14) 김성훈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국외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철야	오후 11:00	금요일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영아부	11 오전 9:00 11 오전 11:00	선교관 1층	장년 2부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년 1부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장년 2부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장년 3부
초등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성남소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사람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예배다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타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총회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3층	경
초대부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대

구분	시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507호
청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2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사 랑 부	오후 12:15	갈 밀 리
사 랑 부	오전 11:00	북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11:00) 오후 1:00(장성)	제2교육관 1층
제자작약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작약부	오후 12:15	배 다 니
충원여리미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진실예배인교	주간교육	충원북지관
청년예배인교	오전 11:00	이 매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e'lanjan, Chinese, Mon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7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직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심사가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어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한 주소를.
- ② 총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심사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③ 2005년말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
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 ④ 배말을 주께 주요인으로서 심도는 교화주변 전도
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
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와 속회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
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
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심사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을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대목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원이 심사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회로에서 총재(유지·통상·복자)는 심사가의
요소에 관한 지침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회 오시는 길

